

## 조성된 위협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 지도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정치군사적 도발로 하여 나라의 정세는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다.

지난 8월 4일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 사건을 등대고 전전선에서 재개된 남조선군부깡패들의 대북심리전방송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있으며 악질반동단체들을 동원하여 벌리고있는 대북베라살포작전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북심리전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겨냥한 로골적인 침략전쟁행위이다.

이는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켜가는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삶의 모든 영역을 찬탈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일 남조선국방부에 48시간안으로 재개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최후통첩을 들이댄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한 도발광기에 열이 뜬 남조선군부깡패들은 주체 104(2015)년 8월 20일 오후 또다시 있지도 않는 《북포탄발사》 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구실로 신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토를 향하여 수십발의 포탄을 탄사하는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저질렀다.

우리의 면전에서 무모하게 벌어지는 남



조선군부깡패들의 이러한 정치군사적도발은 지금 나라의 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8월 20일 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장들과

국가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대외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는 8월 20일 오후 전선중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적들의 군사적도발행위의 경위와 진상, 전반적적정에 대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20일 23시현재 작전진입준비실태를 점검하고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대응계획이 토의되었으며 불가피한 정황에 따라 전전선에서 일제히 반타격, 반공격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격작전계획이 검토, 비준되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8월 20일 17시 남조선국방부에 48시간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내보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결심을 승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적들이 48시간안에 심리모략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수단들을 격파사격하기 위한 군사적행동과 있을수 있는 적들의 반작용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임명되어 해당 전선으로 급파되었다.

그리고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된데 맞게 해당 지역안의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 안전보위, 인민보안, 사법검찰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을 준전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또한 적들의 로골적이고 불의적인 침략으로 인한 현 사태의 진상을 낱알이 가뭇히고 폭로하기 위한 대외부문 일군들의 임무와 과업이 제시되었다.

본사기자



8월 25일은 선군절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령도를 시작하신 8.25가 있어 나라의 번영과 근력강화에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고 선군으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은 더욱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총대를 중시하는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었으며 그이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었다.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민족의 행복한 미래도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신 그이께서는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한평생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군대를 불패의 무적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으며 선군의 위력으로 애국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선군사상을

#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정립체계화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십시오 민족수호와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거대한 역사적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었다.

일찌기 준엄한 전화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시는 권총을 받으시며 한평생 이 총과 혁명을 같이하겠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그날의 맹세를 지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군천만리를 걸으시었다.

1960년대에만도 일당백의 고향인 대덕산초소를 비롯하여 수백차에 걸쳐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시찰길을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무적강군으로 장성강화되었으며 적대세력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제압하며 민족의 운명과 자주

권,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90년대는 공화국에 있어서 참으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시기였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라는 대정치파동에 편승하여 반공화국적대세력은 《사회주의의 종말》을 운운하며 조선에 대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폈다. 민족의 대극상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나라와 인민이 2중 3중의 고난과 난관을 헤쳐야 했던 준엄한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수호를 위하여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근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었다.

인민군대만 강하면 천하대적이 덤벼들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확신하신 그이께서는 나라를 지키기만 하면 경제와 인

민생활을 추켜세우는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철의 신념으로 인민군인들이 지켜선 다박솔초소를 찾으신데 이어 전선에서 전선으로 총횡무진하시며 조국수호의 선군장정을 끝없이 이으시었다.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 훈련장들을 시찰하시며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수호정신을 북돋아주시고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승리하는 필승의 지략과 전법, 무비의 담력을 안겨주신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에 의해 인민군대는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그이의 선군장정은 눈물없는 새길수 없고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애국헌신의 자욱으로 수놓아져있다.

초도방어대를 찾아 자그마

한 쾌속정을 타시고 풍랑사나운 날바다를 헤쳐가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며 밤깊도록 집무를 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이른새벽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찾으신 시찰길, 한 발 잘못 디디면 천길벼랑밑으로 굴러떨어질수 있는 오성산의 칼벼랑길로 야전차를 밀며 오르신 만단사연은 그이의 선군길이 얼마나 시련에 차고도 간고한 길이었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하여준다.

주체85(1996)년 3월 어느날 온 하루 전선동부의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달리신 주행거리가 1 000여리에 달한다는 하나의 사실은 그이의 조국수호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투철하고 강렬하신것인가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는것이다.

바로 이런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그이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무려 167만 4 610여리에 달하는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었다.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 것과 맞먹는 머나먼 초강도강행군길에서 그이께서 찾고 찾으신 단위는 무려 1만 4 290여 개를 헤아린다.

이 불멸의 선군장정이 있어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공화국의 국력이 비상이 강화되고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쳐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신 자신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뜨리고 아팠다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

제사정이 곤란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회고하시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걸으신 선군천만리가 있어 군사강국의 든든하고 뿌리깊은 기둥우에서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로 날아오르고 핵시험의 장쾌한 퇴성이 지구를 흔들며 깨워 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만방에 파시될수 있었으며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가 팡팡 쏟아져나오고 CNC공작기계바다가 펼쳐져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오늘 민족자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그이께서는 주체102(2013)년 8월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발표하신 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선군은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드립없는 혁명신조였으며 조국청사에 빛나는 승리와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신 위대한 혁명실천이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갈것이라고 확언하시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적대세력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에서 기어이 최후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선군의 상징 오성산의 칼벼랑

## 백두산혁명강령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동족대결과 군사적긴장을 추구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분별없는 반공화국전쟁책동에 의해 현정세는 민족주발의 전쟁국면으로 치달고있다.

감히 불질을 해대며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경거망동으로 조성된 위협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선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상태를 선포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무장력은 도전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격동상태에 진입하였다.

백두령장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위력은 무진막강하다.

지난 세기 1950년대 총과 대포로 미제와 싸우던 어제날의 군대가 아니다. 자위의 핵을 보유하고 지구상의 그 어디에 있는 적이든 단때에 쳐부실수 있는 장거리미사일들, 전락잠수함의 수중탄도탄을 비롯한 무진막강한 근력을 가지었다.

백두의 훈련열풍이 차남

치는 속에 모든 군인들이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자라났으며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어떤 적도 단때에 쳐부실수 있는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었다.

이렇듯 오늘 조선인민군은 미제가 원하고 령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할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있다.

인민군병사들의 가슴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과 배짱,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침략세력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열기가 용암처럼 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첫 군부대시찰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실 의지를 천명하시었고 최대 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과 최전연초소들을 련이어 찾으시며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불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전군을 진정한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만드시었다.

전쟁은 언제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전군에 백두의 훈련열풍이

일도록 하시고 전군이 적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할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주신 원수님이시다.

정력적인 선군장정으로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적들이 공화국의 령도를 단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원수의 머리우에 강력한 보복타격을 안기라고,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낸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의 조국통일대진군을 개시하겠다고 하시었다. 이제 는 말로 하던 때는 지났다고, 이제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원수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짓이겨버려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병사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용맹을 안겨주시는 그이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그대로 인민군대의 멸적의 기상이고 용기백배한 의지이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 뛰어난 지략과 세련된 령군술을 지니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를 받는 인민군대의 힘은 무진막강하다. 적대세력이 대북심리전을 계속하며 도발에 날뛰다 면 영웅한 공화국의 군대에 의해 처참한 징벌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최복실



# 공 격 형 의 장 군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반공화국정치군사적도발로 나라의 정세는 전쟁점성으로 치닫고있다.

남조선의 온 땅과 하늘, 바다를 북침을 위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무대로 만들다 못해 있지도 않는 《북포탄발사》사건을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신성한 공화국의 영토에 수십발의 포탄을 탄사하며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교란하고있는 호전세력이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며 조선반도에서 끝날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그러나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적대세력은 자기들이 맞서고 있는 상대가 얼마나 강하고 저들의 북침전쟁소동이 얼마나 무모한짓인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것 같다.

원수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상의 무기와 함께 자위외의 핵병기까지 보유하고있는 세계유일의 군대인 인민군대를 당할자는 이 행성에 없다.

특히 공화국에는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는 회세의 명장이시며 일단 결심하시면 벼락같은 타격전으로 백승을 떨치시는 공격형의 장군이시다.

지금으로부터 주제101(2012)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대열점지대

인 판문점을 시찰하신 그 날에도 지적에 보이는 남조선에서는 당장이라도 실전으로 넘어갈수 있는 북침전쟁연습이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그날 대낮에 위험천만한 판문각로대에까지 나가시여 쌍안경으로 남녘의 산야를 바라보시며 적정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하기에 당시 남조선의 한 언론은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보란듯이 대낮에 판문점을 시찰하시여 쌍안경으로 군사분계선과 분단의 현장을 한참동안 둘러보시였다.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수가 없었다. 도대체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배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히 추리하기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라고 전하였다.

그날의 판문점시찰의 길은 그후 무도와 장재도, 월내도를 비롯한 최전방 섬초소들과 오성산의 까칠봉을 비롯한 최전연지역들로 끝없이 이어졌다.

바로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에 올린 통일의 피성을 메아리로 울리시며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담아 원수들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맞설것이라고 거듭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서리발같은 선언은 오직 민족의 수호자, 백두령장만이 내리실수 있는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기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이 땅에 튀기는것을 허용할수 없고 겨레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영원한 평화와 통일을 주고싶으신 그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제거를 위해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그만둘데 대한 공화국의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들어와서도 전쟁연습소동에 계속 미친듯이 매달리는 내외호전세력에게 단호한 인민군 부대들의 훈련을 련이어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의 조직지도밑에 진행된 비행사들의 전투비행훈련,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등은 평화의 원수들이 감히 군사적도발과 전쟁의 길로 나온다면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보도 없이 필요한 시기에 임의의 대상에 대한 무자비한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하게끔 만단의 준비를 갖춘 인민군대의 위용과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였다.

군사훈련의 나날 모든 군인들을 땀땀 나는 일당 백싸움군, 백두산호랑이로 준비시키고 모든 부대들을 강철의 근위부대로 만듦으로써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미처 정신을 차릴새없이 놈들을 목사발 만들고 반미대결전을 총

결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백두산의 칼바람정신을 지니신 선군령장의 결심은 단호하고 타격은 무자비하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대규모군사연습의 강행과 수십발의 포탄을 공화국의 영토에 날리는 무모한 도발소동까지 감행하여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고있는 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선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백두산악과 같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탁월한 군령도로 공화국을 최후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오늘도 군대와 함께 최전연에 계신다. 지금 온 나라 군대가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호전세력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만약 적대세력이 감히 무분별한 도발을 계속 감행한다면 공화국의 천만 군민은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넘어가 세기를 두고 이어지는 민족의 분열을 영원히 끝장내게 될것이다.

채 주 언

## 상상할수 없는 위력한 타격으로

### 무비의 담력과 배짱, 단호한 결심

두해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감시소에서 적정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방에서 적대상물들을 소멸하기 위한 타격순차와 진압밀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새로운 해상작전규정도 비준하시였다. 적아간의 대립이 가장 예민한 수역에서 적들이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데 대해 지적하신 그이께서는 속담에 불을 좋아하는놈 불에 타 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불에 타죽으려고 째하면 예민한 열점지역에서 불장난질을 하고있

는 적들을 명령만 내리면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고 하시였다. 일단 명령이 내리면 적들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아 백두산혁명강군의 진짜전쟁맛을 제대로 보여주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날 백령도의 적들을 타격할 화력임무를 맡고있는 장거리포병구분대를 시찰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적들이 무분별하게 날뛴다면 상상할수 없는 위력한 타격으로 정의의 불벼락을 들춰워 침략의 무리들이 다시는 살아날뉘지 못하게 모조리 짓몽개버리라고 하시였다.

## 두고두고 후회하게

지난해 7월 인민군대의 각 군종 부대들의 섬상륙전투훈련이 있었다. 훈련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력강화의 기본인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였다. 전군이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

면서 하늘과 땅,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지금 신성한 우리 조국의 서남전선해역은 한줌도 못되는 적들때문에 때없이 위협을 받고있다고 하시면서 원수들이 잘못 정한 날에 잘못된 선택을 두번다시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것이라고 단호하게 언명하시였다.

##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해야

지난 2월에 있는 인민군대의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때였다. 해당 지휘관의 결심보고청취로부터 연습개시명령하달 그리고 훈련결과총화에 이르기까지 연습전과정을 조직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이 용암처럼 끓어

번지게 하여 모든 군인들을 땀땀 나는 백두산호랑이로 준비시키고 모든 부대들을 강철의 근위부대로 만듦으로써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미처 정신차릴새없이 목사발 만들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 선군이 꽃피워주는 인민의 행복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지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을 펼쳐 놓았다.

대홍단의 감자꽃바다와 범안리의 선경, 장자강의 불야경, 한드레벌의 지평선, 조선의 철갑상어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사과꽃바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안아오신 행복의 열매들인것이다.

철령아래 펼쳐진 고산 땅의 사과바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비내려도, 찬바람 사정없이 몰아쳐와도 넘으신 무수한 령길, 시련을 헤치신 선군의 길이 무엇을 위한 길이였는가를 전하며 설레이고있다.

아이들의 웃음실고 출렁이는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백사장의 흰 파도를 바라볼 때면 장군님께서 헤쳐넘으신 바람세찬 초도예로의 파도길이 되새겨지고 최첨단을 돌파하며 CNC화를 훌륭히 실현한 현대적인 공장들을 볼 때면 장군님께서 단행하신 최전연 판문점에서의 전선시찰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돌이켜보면 선군이야말로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사랑이었고 최고의 헌신이였으며 최상의 보람이였다.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는 인민들의 모습을 뒤에 두시고 전선길을 이어가실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주 터치군 하시던 심중의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보아야 한다. 사회주의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란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나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다. ...

력사는 진리를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 하였다. 것처럼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이제 는 옛일로 되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오늘 의 현실은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천근만근의 무게로 새기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 무수히 뿌리신 행복의 씨앗들이 오늘 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알찬 결실을 맺어 도처에서 인민의 웃음, 행복의 웃음이 꽃피고나있다.

장군님 헤쳐오신 선군의 길을 이어가시며 승리를 확신하자고, 밝은 미래는 우리 인민의것이라고, 인민의 행복과 안녕,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지켜 혁명의 총대를 더욱 굳게 틀어잡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는 사회주의수호의 보검만이 아닌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길에서 파도세찬 날바다길에도 서슴없이 나서시였고 폭음울리는 훈련장, 침략세력의 총구가 지적에 도사리고있는 최전연의 최전방초소도 시찰하시며 무적의 군력강화로 인민의 행복을 지키시였다.

인민군대는 평화의 수호자일뿐 아니라 행복의 창조자이다. 군인들이 평화적건설에 동원되어 인

민을 위한 건축물을 일떠세우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현실인것이다.

군인들이 웨치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는 절세위인들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군대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는것 아닌가.

최근에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 과학자휴양소, 아이들의 궁전,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은 레외없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에 의해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선것들이다.

지금 이 시각도 평양의 대동강반에는 인민들의 보금자리를 건설하는 군인들의 불꽃튀는 건설전투가 벌어지고 속셈한 북판에는 군인들에 의해 과학기술전당이 회한하게 들어앉고있다.

선군으로 마련되는 인민의 행복, 그것은 또 한분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커만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순

# 평양시간과 더불어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으로

조국해방 70년이 되는 의미 깊은 날에 북에서는 력사의 새 시간이 시작되었다.

지난 8월 15일 0시,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해방감격의 메아리런듯 평양에서 울리는 평양중의 울림소리는 온 겨레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

## 평양에서 울리는 자주의 초침소리

《동경 127° 30' 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다.》 평양에서 울리는 장엄한 선언에 온 겨레는 박수로 환호했다.

애서인가. 일제의 불법무도한 만고죄악을 폭로하고 그 잔재를 청산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였다는 의미에서 평양시간의 명명 그 사용은 민족사적경사로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표준시간을 누가, 어떻게 되찾았는가.

다름아닌 북이 우리 민족의 자주를 지켜, 존엄을 지켜 되찾은 것이다.

력사를 거슬러가보면 원래부터 사용되던 조선의 표준시간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민족동화정책, 민족말살정책의 첫 대상이 되어 칼부림을 당하였다.

불법무도한 《을사5조약》을 날조한 후 일제는 1906년 6월부터 조선에 있는 현지 칙략기구들에서 조선표준시대인 일본표준시를 쓰도록 하였고 《한일합병》 직후인 1912년 1월 1일부터는 동경 127° 30' 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을 빼앗고 조선의 전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경 135° 를 기준으로 하는 도표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며 행성의 하늘가에 메아리쳐 갔다.

8.15와 함께 시작되는 평양 시간, 그 시간에 해외인생의 분초를 맞추며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에 메아리치는 평양시간의 력사적, 민족사적의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자주의 초침소리

동서고금 세계사의 폐지를 번져보아도 식민지민족의 표준시간을 빼앗고 저들의 표준시간을 강요한 그런 침략자가 과연 있었던가.

일제, 사무치는 원한과 증오의 대상이고 천추만대의 숙적이 아닐수 없다.

얼어진 등지에 성한 알이 없다고 운명도, 강토도, 자원도 지어 성과 이름까지도 강탈당한 우리 민족은 생존의 시시각각마저도 일제의 도표시간에 허덕이던 쫓겨야만 하였다.

1945년의 8.15가 일제의 패망을 알리는 순간인 동시에 자주독립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면 해방 70주년이 되는 이번 8.15는 북에서 남아있던 일제잔재를 가슴 후련히 숙청하고 빼앗겼던 민족의 시간

을 되찾은 민족사의 사변적인 날이다.

너무도 응당하고 백백천번 정당한 애국의 조치가 북에서 취해진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북은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나라이다. 북에서 흘러온 지난 70년사는 해방의 진정한 의미와 민족의 정기를 살려 일제통치에 아부하고 협력했던 친일파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언어와 문화, 관습, 생활양식 등 사회의 구석구석에 뿌리박고있던 모든 일제잔재를 털어버려온 애국의 70년이였다.

북은 해방 70주년이 되는 이번 8.15를 계기로 시간리용에서 일제의 식민지잔재를 가슴 후련히 청산하였다.

단순히 빼앗겼던 표준시간만 되찾은것만이 아니라 민족사를 바로 잡은것이고 국제무대에서 민족자존심을 되찾았다.

평양시간이라는 부름하나에도 우리 겨레의 넋과 기개가 도도히 흐른다. 조선민족의 자주와 존엄의 당차고 힘찬 맥박소리로 울려가는 평양시간이다.

원래는 8.15이후 이남도 빼앗겼던 민족의 시간을 되찾아 한동안 사용해왔었다.

그러다가 1961년에 어제날의 오가모도중위인 친일파 박정희가 권력을 휘둘러 우리의 표준시간을 다시 일본의 도표시간으로 되돌려놓았다.

리유는, 당시 《유신》 독재자의 측근들이 말했듯이 《유사시》 일본과 이남장점 미군과의 《공동작전수립에 지장이 될수 있다.》는 그것때문이었다.

미일과 힘을 합쳐 동족을 치자고 민족의 시간을 침략의 도표시간으로 되돌려놓은것이다.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가. 1894년에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시기 봉기군을 밀고, 학살한 대가로 영월군수라는 벼슬을 한 해묵은 친일분자인 애비의 뒤를 이어 일제시기에는 투등친일군인인 오가모도중위로, 해방후에는 《제2의 리완용》이 되어 범죄적인 《한일회담》으로 일본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렸고 일본의 《명치유신》을 그대로 본따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유신》독재자로 등장했던자가 박정희이다.

북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친일파들이 8.15이후부터 미국을 등에 업고 정계와 군부, 재계의 명줄을 이어온 이남은 해방 70년 되는 지금도 친일파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제 세상처럼 날치는 거꾸로 된 세상이다.

《찌기야마 아끼히로》라는 일본식이름을 가진 오사까태생 리명박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민족의 신성한 령도인 독도를 일본에 섬겨바치기 위해 안달부달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 미국에 날아가 돌아가며 큰절을 하는 친미사대굴종으로 민족의 망신을 특특히

시간을 제정한 북의 조치를 과거에 대한 털끝만 한 반성과 사죄도 없이 제침을 꿈꾸는 낮가죽 두꺼운 일본이 좋아할리는 만무한것이다. 속이 뒤틀린 일본이 하고싶은 말을 이남위정자들이 그대로 대변하여 북에 항변하고있는것이다. 왜 시간을 마음대로 고치는가고.

일본시간에 지금껏 맞추어 살아온것이 무엇이 좋아서 이따위 수작질인가.

따져놓고 보면 그것은 뼈속까지 들어찬 친일사대굴종의 대표적인 표현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이남의 보수당국은 북이 평양시간을 제정한데 대해 《남북의 시간분단》, 《남북통합, 동질성회복에 지장을 준다.》고 떠들어대고있다.

피이한 론거이다. 민족정기와 존엄을 되찾았는데 무엇이 《시간분단》이고 《지장》을 주는가 하는것이다.

통일은 외세에게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일이다. 민족의 넋과 얼을 지키는 일이다. 일제가 강탈해간 조선시간을 되찾는것도 통일의 한 과정이고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평양시간은 민족의 통일운동을 자주의 궤도에 확신성있게 올려세운 사변이다.

언제나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해온 평양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단선단정》 조작음모로 민족분열의 위험이 짙어가던 시기에 평양에서 열린 4월남북련석회의, 1972년 평양이 제안하고 7.4공동성명으로 채택된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헌법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두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

올해에도 평양에서는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토론회를 열어가자는 애국애족의 호소가 울려나왔다.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큼직큼직하게 획을 그은 력사적사변들이 모두 평양에서 일어나고 통일대강들도 평양에서 울려나온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와는 너무도 판이하게 지난 70년간 이남에서 흘러온것은 대결과 분단고착의 시간, 북침전쟁의 시간뿐이었다.

분단고착으로 이어진 범죄적인 《단선단정》이 강행된것도,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것도, 《두개조선》을 국제적으로 인정시키려는 《6.23특별성명》이 울려나온것도 이남이며 외세가 그분 단선우에 대결의 콩크리트장벽까지 덧쌓은것도, 《흡수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대결의 한파를 계속 몰아오고있는 것도 다름아닌 서울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평양시간을 부정하고 시비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시간, 통일시간에 자기들도 초침을 맞추는것이 옳은 처사일것이다.

민족은 자주에 살고 통일에 살기를 바란다.

누가 뭐라고 하든 평양시간은 민족의 자주열망, 통일열망을 담고 줄기차게 흐를것이다. 민족은 영원히 평양시간에 마음의 초침을 맞추고 평양시간으로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의 새 아침을 안아올것이다.

재중동포 박미자

로》의 노래가 우리 해외동포들의 마음에 꼭 든다.

몸은 만리이역명에 살아도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 이 노래를 부르며 통일의 신념과 의지를 더 억세게 버려 나가겠다.

재우즈베기스판동포 정 아가따

이반에 고국에 와서 처음으로 배운 《가리라 백두산으



주제 104(2015)년 8월 15일 0시 조선에서 표준시간의 첫 종소리가 울리었다.

# 통일 앞날이 밝다

1990년 8.15를 계기로 판문점에서 국도가 갈라져 45년 만에 처음으로 북과 해외의 대표들이 모여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개최했을 때부터 매년 참가해왔다.

이번에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고보니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통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바쳐 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환없는 그리움을 누를길 없다.

동서고금에 위인이 적지 않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이민위천, 애국애족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전설적위인들을 나는 알지 못하고있다.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것은 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선대수령들의 업적이 오늘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는것이다.

나는 2012년 4월 15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불같은 의지를 천명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들으며 북남관계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확신성있게 내다보았다.

하기에 제4차 전국어머니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의 자리에서 나는 그이께서



게시여 우리 민족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고 마음속진정을 터치었다. 나는 대를 이어 통일의 태양을 높이 받들어보신 크나큰 공지를 안고 해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 힘차게 벌려나가겠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회원 전 재련

## 백두의 넋을 안고 살겠다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 자주통일대행진 백두산출정식에 참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출렁이는 천지의 푸른 물과 저 멀리 남해기슭까지 하나의 지맥으로 련련히 뻗어나간 산발들을 품에 안고 거연히 솟은 조종의 산 백두산에 오르니 가슴은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었다.

백두산은 항일의 눈보라 만리를 헤치시며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해방업적이 깃들어있는 민족의 성산이며 선군총대로 미국의 전쟁도발음모를 분쇄하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

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애국업적이 깃들어있는 통일의 성산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며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나는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백두산에 올라 북과 남, 해외 온 겨레가 백두의 넋과 기상,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싸워나갈 때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룰할수 있다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 고국에 와서 처음으로 배운 《가리라 백두산으

로》의 노래가 우리 해외동포들의 마음에 꼭 든다.

몸은 만리이역명에 살아도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 이 노래를 부르며 통일의 신념과 의지를 더 억세게 버려 나가겠다.

재우즈베기스판동포 정 아가따





# 침략자, 도발자들은 값비싼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보수당국이 벌려놓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사란다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하여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련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정례적이며 방어적인 군사연습》이라

가디언》연습으로 바꾸었지만 연습의 침략성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09년에 진행된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작전계획 5027》 대신 새로 작성된 보다 위협천만한 북침공동작전계획이 적용되었으며 2011년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의 합동기동부대를 편성하여 《〈금번사태〉 시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탐지

한 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투입하였으며 《B-2》와 《F-22》 전투기를 비롯한 핵타격수단들까지 끌어들이어 전쟁연습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화국의 《평양 점령》을 작전임무로 하는 남조선미국련합사단과 같은 침략부대가 참가한것은 이 연습의 침략성을 더욱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시간과 장소를 교묘하게 바꾸어가며 반공화국베라살포에 열을 올리고있다. 재개된 반공화국심리모략전과 그에 뒤이은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행, 신성한 공화국의 영토에 대한 수습발의 포탄발사, 이것은 한갓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북침전쟁도발의 단계들이다.

내외의 강력한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북침전쟁연습과 무력도발소동은 조선반도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있으며 북남관계를 더욱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공화국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군사적대응도 최대한 거세질것이라는데 대하여 경고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누구를 감히 놀래워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불에는 불, 핵에는 핵,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 그 어느것이나 다 준비되어있는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인민의 행복의 웃음이 날로 늘어나는 우리 공화국, 황금해에서 풍겨오는 바다향기와 과수농장마다에서 향긋하게 코를 찌르는 과일향기, 풍요로운 어머니대지에서 풍기는 구수한 낱알향기를 북침전쟁의 화약내로 덮어버리려는 오만한 미국놈들과 그에 아부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무모한 전쟁광기는 지금 이 나라 수천만 인민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어제날 군인이었던 나는 지금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어로

## 《울지 프리덤 가디언》의 도발적성격과 위험성

느니, 《군사연습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될수 없다.》느니 하는 판에 박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그것을 기어이 강행해나섰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본래 간판은 《울지 포커스 렌즈》였다. 남조선에서 1970년대 중엽부터 해마다 벌어져온 《울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에 대한 핵심제타격을 노리고 침략무력의 실동능력을 높이는 한편 북침전쟁도발에 대비한 남조선군과 행정기관, 민간인의 준비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북침전쟁연습이었다. 2008년부터 이름을 《울지 프리덤

하고 제거하는》 훈련과 이른바 《이북5도청》과 《이북5도위원회》 등이 참가하여 《금번사태》에 대비한 《북안정화 및 민정이양작전》 훈련을 감행하였다. 지난 2013년에 진행된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때에는 판도에 있는 《B-52H》 핵전략폭격기까지 참가하여 공화국을 핵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벌여왔다. 이처럼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해가 바뀔수록 그 침략적성격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번 연습에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

이처럼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에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핵시행전쟁, 북침전쟁연습이다. 더욱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북지뢰도발》이라는 터무니없는 모략극을 구실로 한 반공화국심리전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감행된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당국은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을 억지로 공화국과 결부시켜 《북도발》로 단정하고 그것을 구실로 대북심리전쟁을 전면적으로 재개하였다.

침전전쟁연습과 무력도발소동은 조선반도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있으며 북남관계를 더욱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공화국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군사적대응도 최대한 거세질것이라는데 대하여 경고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도발적인 전쟁소동이 가져올 돌이킬수 없는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누구를 감히 놀래워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불에는 불, 핵에는 핵,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 그 어느것이나 다 준비되어있는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인민의 행복의 웃음이 날로 늘어나는 우리 공화국, 황금해에서 풍겨오는 바다향기와 과수농장마다에서 향긋하게 코를 찌르는 과일향기, 풍요로운 어머니대지에서 풍기는 구수한 낱알향기를 북침전쟁의 화약내로 덮어버리려는 오만한 미국놈들과 그에 아부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무모한 전쟁광기는 지금 이 나라 수천만 인민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어제날 군인이었던 나는 지금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어로

공으로 일하고있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마음속의 군복은 한시도 벗지 않고있다. 만약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의 령토, 우리의 령공, 우리의 령해를 단 0.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나는 이 손에 다시 총을 쥐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는 전장에 달려나가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겠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어로공 리 철 우

## 무자비한 징벌을 안겨야

내외호전세력들이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뜨겁게 돌아오른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끝낼때 벌려놓은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것은 조선반도를 기어이 전쟁의 참화속에 밀어넣으려는 극악한 반민족적, 반인륜적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 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어 동족을 향한 전쟁연습을 해대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파렴치한 동족대결의 능수들이다. 현실은 현 남조선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대화》라령이

한갓 기만이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동족을 해치려는 적대와 대결광기만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불을 즐기는 이런 호전광들에게는 사정을 보지 말아야 한다. 정의의 위력한 불세례로 전쟁광신자들이 다니는 《도발》이니, 《연습》이니 하며 날뛰지 못하게 사등뼈를 분질러놓아야 한다. 김일성총합대학 교원 황금철

## 이 땅의 향기를 빼앗지 못한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누구를 감히 놀래워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불에는 불, 핵에는 핵,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 그 어느것이나 다 준비되어있는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인민의 행복의 웃음이 날로 늘어나는 우리 공화국, 황금해에서 풍겨오는 바다향기와 과수농장마다에서 향긋하게 코를 찌르는 과일향기, 풍요로운 어머니대지에서 풍기는 구수한 낱알향기를 북침전쟁의 화약내로 덮어버리려는 오만한 미국놈들과 그에 아부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무모한 전쟁광기는 지금 이 나라 수천만 인민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어제날 군인이었던 나는 지금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어로

공으로 일하고있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마음속의 군복은 한시도 벗지 않고있다. 만약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의 령토, 우리의 령공, 우리의 령해를 단 0.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나는 이 손에 다시 총을 쥐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는 전장에 달려나가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겠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어로공 리 철 우

##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연습을 중단하라》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29개 전라북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해나섰다.

그들은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을 계기로 휴전선린근의 군사적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을 하는것은 〈한〉 반도 군사대결을 더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번 연습은 《〈한〉 미당국의 《년례적이고 방어

적인 연습》이라는 주장과 달리 선제공격이 포함된 《맞춤형억제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한〉 미련합군과 공무원, 민간인 등 4 000여개 기관, 48만 명이 참여하는 류례가 없

는 규모의 훈련》이라고 하면서 《〈한〉 미련합훈련을 비롯해 북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를 하는 평화의 길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 동족대결과 증오심을 고취하는 군사연습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끝낼때 강행하였다. 해외에 주둔한 3 000여 명의 침략군을 포함하여 3만여명의 미군과 남조선군 5만명이 참가하여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벌리는 이 불량난소동으로 말미암아 북침전쟁소동의 화약내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뒤덮고있다.

현실이 이를 증명해주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17일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청와대에서 《울지 국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그 누구의 《불법적인 군사분계선침범》이니, 《명백한 군사도발》이니 뭐니하고 떠들면서 그에 따른 《확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입을 거품을 물고 전쟁폭언들을 늘어놓던 끝에 《전시상황을 가정》하여 행정기관과 민간인들까지 참가하는 연습을 강도높게 벌릴데 대해 떠들어댔다. 한마디로 이날의 《울지 국무회의》도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구실로 남조선군을 북침전쟁도발에로 마구 내몰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심어주고 대결광기를 불어넣기 위한 현 집권자의 전쟁선동 웅변장이었다.

현 집권자가 공화국의 정의의 징벌이 무서워 청와대의 《지하버커》라는 데서 전쟁모의관을 벌려놓고 악의에 차서 공화국

이것이 북남관계를 대결과 군사적충돌,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여기에는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높아진 남조선인민들의 평화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그들에게 동족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불신감을 심어주려는 고도로 계산된 불순한 흉심도 어렸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보여주는 사실들은 현 남조선당국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략도 서슴지 않는 음모가, 민족반역의 무리들로써 이 땅에 핵전쟁의 재난도 서슴없이 몰아오려는 호전광들이라는것을 여지없이 실증해주고있다. 움켜쥐면 구겨지고 불에 달면 타버리고마는 종이장의 사자와 같은 존재인 상전을 하내비처럼 믿고 분별없이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에게 온 겨레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릴것이다. 본사기자 김 웅 철

북침전쟁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채널A》는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라고 하면서 북이 당장건 70돛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기부금제도를 만들었다.》 느니, 《기부증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형량을 면해준다.》 느니 뉘니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뒤질세라 《MBC》 방송도 새로 건설된 평양양로원을 걸고 공화국의 제도를 헐뜯으면서 입소대상자들을 《충성심을 자대로 선정》한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실로 황당무계한 모략선전이 아닐수 없다. 이 악담질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고 인민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순결한 충정심을 모독하는 참을수 없는 극악한 도발행위이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품모에 매혹되어 운명도, 미래도 그이품에 맡기

## 《채널 A》의 황당한 잡소리

고 그이의 심장에 박동을 맞추고 발걸음을 따라세우려는것은 공화국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신념으로 간직된 숭고한 정신세계이다. 오직 돈밖에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도 돈으로 사고팔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추물들은 백년천년이 가도 리해할수 없는 고상한 세계이다. 그 고귀한 진리를 세치도 안되는 허박닥으로 우롱하고 모독한 쓰레기언론인들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수 없다.

새로운 《기부금제도》라는것은 실로 낫도깨비같은 소리이다. 공화국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따라 새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양로원에 입소한 로인들도 그 무슨 《자대로 선정》된것이 아니라 이전의 평양양로원에서 보양생으로 있다가 그대로 옮겨온 로인들이다. 그들은 지금 궁전같이 꾸러진 양로원에서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즐겁고 행복

한 나날을 보내면서 국가의 따사로운 사랑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낼수 없는 인민적시책이 펼쳐지는 황홀한 이 현실이 그렇게도 배가 아프고 저들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풍지박산되어 가는데 질겁한 대결광신자들이기에 있지도 않는 자료를 날조하며 황당한 거짓선전을 해대는 것이다.

남조선극우보수언론들의 이러한 모략행위는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바로 얼마전에도 《채널A》와 《MBC》 것들은 북고위장령의 《망명》 설을 내돌리다가 허위라는것이 밝혀져 국제적망신만 특특히 하였었다. 이런 식으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저해만 주고있는 모략의 나팔수들이다.

남조선극우보수언론들이 이러한 모략행위는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바로 얼마전에도 《채널A》와 《MBC》 것들은 북고위장령의 《망명》 설을 내돌리다가 허위라는것이 밝혀져 국제적망신만 특특히 하였었다. 이런 식으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저해만 주고있는 모략의 나팔수들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것은 언론의 고유한 사명이고 본분이다. 《채널A》, 《MBC》의 모략가, 매문가들은 언론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자격마저 상실한 쓰레기들이라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극우보수언론들이 오늘과 같이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고있는 배후에 보수당국이 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인민들조차 《기레기(기자+쓰레기)》라며 손가락질하는 인간추물들을 뒤에서 음모양모로 조종하면서 동족대결에로 내모는 보수당당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북남관계는 악화일로로만 치닫고 있다.

죄에는 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채널A》, 《MBC》 같은 모략집단이 지금처럼 미국과 그 수인들이 던져주는 몇푼의 돈을 받아먹고 반공화국모략행담을 계속 해댄다면 정의의 징벌을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김연희

## 죄주와 규탄을 받아야

나는 새로 꾸러진 평양양로원에서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는 수많은 보양생중의 한사람이다. 이처럼 훌륭한 양로원에서 여생을 마음껏 즐기니 더 오래오래 살고픈 마음뿐이다. 매일매일이 막 꿈을 꾸는것만 같고 이처럼 세계 그 어디에도 볼수 없는 훌륭한 양로원을 우리 로인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무슨 말로 고마움의 인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고마운 인민적시책에 대해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 《충성심을 자대로 입소대상자들을 선정》한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비난한다니 격분을 금할수 없다.

우리가 잘사는게 그렇게 도 속이 뒤틀리는가.

나는 평양양로원이 새로 건설되기 전부터 보양생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그때 함께 생활하던 보양생전원이 새로 건설된 양로원에 그대로 옮겨와서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런 우리를 두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복을 받았다고 부러워하고있다. 그런데 뭐가 어찌 되었다고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풀수에 딱 찬 찬하불망 나니들의 행동이 아닐수 없다. 이런 대결광신자들 때문에 아직 우리 나라가 통일이 못되고있는것이다. 허위와 날조를 밤먹듯하면서 감히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어보려는자들은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평양양로원 보양생 김현숙



##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리전방송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위험한 군사적충돌을 가져올 심리전방송의 중지를 요구하여 11일 국방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국방부가 지난 4일에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를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면서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비

무장지대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을 구실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미국의 《B-2A》, 《F-22A 랩터》 등 첨단폭격기와 전투기들을 끌어들이려 하고있다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이것은 남과 북사이에 군사적충돌을 불러올수 있

는 매우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단체는 군당국이 이번 《지뢰폭발》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심리전방송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 악담질로 얻을것이란 파멸뿐이다

며칠전 남조선집권자가 이른바 《8.15정축사》라는데서 북남관계문제를 놓고 악담을 퍼부은것은 지금 우리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특히 박근혜는 《속청강행》이니, 《주민불안》이니 뉘니 하는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공화국의 체제를 악랄하게 비방하는 한편 북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싸이버공격을 감행해서 안되도발로 정전협정과 남북간불가침합의를 정면 질도 서슴지 않았다. 지어 《도발과 위협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한다.》는 주제넘은 소리까지 해냈다.

이는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가장 극악한 모독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다.

박근혜의 머리속에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병적 인 거부감, 동족대결과 전쟁의 흥심만이 짙 들어차 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집권하기 전에는 물론 《대통령》이든 뒤집어쓴 후에 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입만 벌리면 동족을 자극하고 모독하는 못된 발언만 일삼아 온 민족의 저주를 받아왔다. 그럴 때마다 북은 물론 남쪽의 지성있고 량심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나서서 알아들음만큼 충고도 주고 경고도 하였다.

지각있는 보통사람이라면 이제는 뉘우치고도 남으려면 정말 그의 악담습성에는 약이 없다.

올해가 어떤 해인가. 우리 민족이 40여년간에 걸친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70년

이 되는데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민족분열이 장장 70년 세월 계속되는 비극을 끝내지 못한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해야 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박근혜가 다름날도 아닌 조국해방 70돛이 되는 날에 동족에 대해 거짓말과 비방중상을 앞장서서 해냈으니 과연 그의 품에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는 그 무슨 《속청》과 《불안》에 대해 말할 한조박의 체면도 없었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주장했다고 《중복》과 《리적》의 모자를 씌워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했다고 《불법》으로 몰아 최고량을 채우며 지어 자기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측근들까지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것이 바로 남조선집권자가 저지른 일이다.

하여 오늘 남조선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잔악무도한 파쇼통치로 인민들이 불안에 떨고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독재통치가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자기의 이러한 죄과에 대해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무엄한 행담질을 꺼리낌없이 해낸 박근혜야말로 우리 민족내부에 그대로 들수 없는 암적존재이다.

남조선집권자는 뼈속까지 들어찬 대결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악담질만 해대다가는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지난 10일 이남군부는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난 《지뢰폭발》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나니 왜서인지 그렇다 하기보다는 그렇가 하는 가지가지의 의혹들이 먼저 떠오른다.

첫째, 《정밀검사》 결과 발표이다.

이남군당국은 지난 4일에 일어난 《지뢰폭발》 사고에 대해 수일이 썩 지난 10일에야 《정밀검사》 결과라는것을 발표하면서 무학잔해에서 《송진냄새가 난다.》, 《부속품들이 생생하다.》, 《북의 목함지뢰와 일치하다.》고 하였다.

아직도 많은 의혹속에 싸여있는 《천안》 호사건과는 달리 특지에서 물증수집은 땅짚고 헤엄치기일것이니 증거물수집이 늦어 《정밀검사》 시일이 걸렸다는것은 아닐게고

남새나 말고 부속대조나 하는것은 굳이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도 쉽게 알수 있는 사실이다.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명백》한 《증거물》을 두고 수일간이나 《정밀검사》를 했다는것이 우습지 않은가.

동영상에 관한 남조선군당국의 주장도 그렇다.

이남의 《CBS》가 발표한데 의하면 사고현장에서 2km거리를 두고 군의 최신열영상감시장비가 있었다.

엄청난 자금을 들인 그 최신장비가 북군인들의 《매설》 장면은 촬영 못하고 남조선사병들의 사고장면만 촬영했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저것 의혹투성이인 둘째, 이 사건에 대한 이

남집권자와 군부를 비롯한 당국의 인온한 태도이다.

이남군부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집권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집권자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보자.》고 하였으며 통일부는 북에 《대화》제의라는것을 하였다.

리퍼트가 칼벼락에 맞았을 때 집권자가 해외에서도 화들짝 놀라 《배후세력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경찰,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점과 대비해볼 때 너무도 태연자약하다.

군사병 두명의 목숨이 리퍼트보다 못해서일가, 기상천외한 태도이다.

더우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아래것들과 술판까지 벌렸다고 한다.

가장 첨예한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집권자이하 당국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지뢰폭발》 사고에 대한 의혹을 확대시킨다.

가장 중요하게는 정말 북의 《도발》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조국해방 70돛을 대축전으로 맞이하겠다는 북에 있어서 대내외적안정은 불문가지이다.

그러한 북이 8.15를 당장 눈앞에 두고 벌등치수 시는것과 같이 남북쌍방이 첨예한 군사적대치를 이루고있는 휴전선에서의 안정을 파괴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년초부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 해온 북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북에 대한 불화의 씨를 던질 그런 《도발》을

했다것은 상상외의 모순이다.

의혹은 의문을 낳고 그 의문은 가설들을 확대재생산한다.

그 몇가지를 보면 북에 《대화》를 제기했던 이남당국이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하게 되자 서둘러 《북도발》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는지, 8월 17일부터 미국과 별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는 북, 남, 해외겨레의 초점을 북으로 쏠리게 하기 위한 새로운 《북풍》 사건은 아닌지, 굳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베라살포까지 하겠다고 한것으로 보아 심리전을 재개하려는 구실을 마련하자는것은 아닌지, 정보원의 불법해

킹사건으로 처참하게 구겨진 체면을 살리고 민심을 동족대결에로 몰아가기 위한 이남당국의 상투적수법의 발상은 아닌지, 미국과의 《동맹》과 《북침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한 기화로 만들자는것은 아닌지...

가지가지 의문이 확대되지만 확실한것은 사건으로 번져진 이번 사고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남보수당국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진다는것이고 북남관계가 더욱 암담해질것이라는 점이다.

합선침몰을 《북도발》, 《북위협》으로 몰아 《5.24조치》를 취해 남북사이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보수세력권으로 이어진것이 모략적인 《천안》 호침몰사건이라

면 《호전적》인 북과는 더이상 《대화》도 없고 미국과의 《동맹》만이 《살길》이고 보수가 영원히 집권해야 한다는 흥심이 배회하는것이 이번 《지뢰폭발》 사건이다.

하지만 서툰 각본, 서툰 연출, 서툰 연기이다.

이남의 각계층이 《지뢰사건이 북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다.》, 《미국놈들이 《북소행》이라고 몰아가라.》 하고 그에 충실히 따르는것 같다.》고 하면서 《지뢰폭발》 사고는 당국의 자작극, 모략극이라고 단죄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천안》 호침몰사건때와 같이 애매한 사병들을 회생시켜 저들의 리속을 채우려는 남조선보수당국이야말로 모략과 날조의 상습범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재로씨야 동포 김올라지미르

## 의혹이 키우는 의문들, 그 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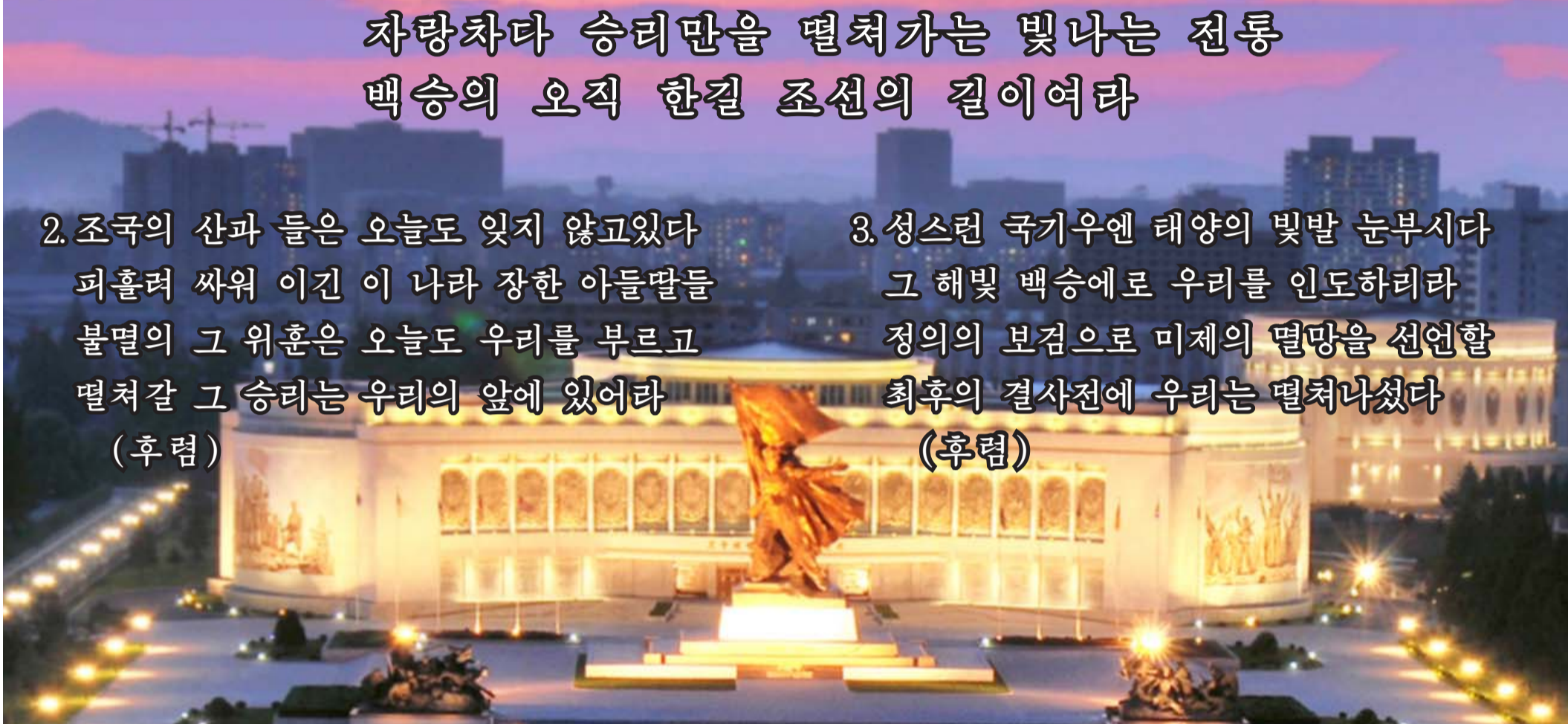
# 승 리 는 대 를 이 어

1.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길 걸어왔다  
 원쑤와 싸워 이긴 력사의 길에 물어보라  
 미제의 성조기를 통쾌히 짓밟아버리며  
 우리가 대를 이어 어떻게 싸웠는가를  
 (후렴)

자랑차다 승리만을 떨쳐가는 빛나는 전통  
 백승의 오직 한길 조선의 길이어라

2. 조국의 산과 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피흘려 싸워 이긴 이 나라 장한 아들딸들  
 불멸의 그 위훈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떨쳐갈 그 승리는 우리의 앞에 있어라  
 (후렴)

3. 성스런 국기우엔 태양의 빛발 눈부시다  
 그 해빛 백승으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정의의 보검으로 미제의 멸망을 선언할  
 최후의 결사전에 우리는 떨쳐나섰다  
 (후렴)



## 백 두 령 장 의 기 상 과 담 력 으 로

조선반도에서 온 겨레와 세인의 우려를 자아내며 전쟁이 다시 터질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빠지직, 빠지직-》  
 평화를 사랑하는 겨레의 손에 땀을 쥐게 하며 한치한치라들어가는 전쟁도화선.

이 도화선에 불을 달고있는 것은 미국의 추악한 하수인인 남조선호전세력이다.

그들은 얼마전 군사적으로 최대로 예민한 군사분계선에서 그 무슨 《목함지뢰폭발》 사건이라는것을 꾸며대더니 전 전선에서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여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조국해방 70돛이 있는 이달에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끝내 강행하여 북침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것도 수수방관할수 없는 사태이다. 지어 전쟁열에 들뜬 남조선군부장관들은 지난 20일 있지도 않는 《북포탄발사》 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구실로 신성한 공화국의 령토를 향해 수습발의 포탄을 탄사하는 무모한 군사적망동까지 저질렀다.

이는 조선반도를 또다시 전쟁의 참화속에 밀어넣으려는 반민족적, 반인륜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 일관하게 평화에 호정책을 실시해온 공화국은 이번에도 군사적충돌이 일어나는것을 막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대북심리전방송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발표되고 련이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진

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서를 모르고 무자비한 타격을 안기는 공격형의 령장, 백두령장이시다.

지금 온 나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적들

의 그 어떤 무분별한 도발도 짓부시고 자비를 모르는 보복타격으로 원쑤들의 아성을 밀뿌리채 들어내고야말 무적필승의 기상에 넘쳐있다.

조선인민군 군관 김원경은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며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나가겠다는것이 우리 군대의

기질이라는것을 피뢰들은 아직도 모르는것 같다. 백두령장께서 지니신 기상과 담력으로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지금도 나발을 붙어대는 대북심리전방송을 모조리 박살내고 우리의 귀중한 존엄을 건드린 적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겠다.》고 말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 광역철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감히 우리의

령토에 포탄을 날린 적들을 어떻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이 가슴속에 쇠물마냥 끓어넘치는 증오와 복수심을 잠재울 길이 없다. 우리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어이 싸워 이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한손에는 마치를,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침략자들과 싸워 승리를 이룩하겠다.》고 말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 우남혁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지향에 도전하여 전쟁행위만 일삼는 남조선호전세력을 용서할수 없다. 우리에게선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신다. 나에게 총을 달라. 병사시절에 련마한 백발백중의 사격술로 원수들을 쳐부시고 교정에 다시 들어서겠다.》고 말하였다.

지금 전선시대만이 준전시상태에 있지 않다. 온 나라가 격동상태에 있다.

백두령장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두려움이란 말자체를 모른다. 진정평화를 사랑하기에 백두산총대를 높이 추켜들고 싸움준비를 완성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모시여,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공화국의 천만군민이 있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원수들은 참패의 쓴맛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